

구비문학과 현대소설의 상호텍스트 관계 연구

—<이여도>설화와 이청준의 「이어도」를 중심으로—

강영기*

차례

- I. 서론
- II. 구비문학 <이여도> 분석
 - 1. 구비문학 <이여도>에 나타난 화소
 - 2. 구비문학에 나타난 <이여도>에 대한 욕망
 - 3. 구비문학 <이여도>에 나타난 주제
- III. 이청준의 소설 「이어도」 분석
 - 1. 표제의 의미
 - 2. 이야기의 분절과 의미망 요약
 - 3. 의미망의 기능탐색
 - 4. 이야기의 예술적 변형논리 분석
 - 5. 인물의 욕망과 플롯의 기능
 - 6. 주제 분석
- III. 구비문학 <이여도>와 이청준의 「이어도」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
- IV. 결론

I. 서론

문학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테두리 속에서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한

*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학작품이 서로 연관되어 유기적인 존재로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의 창작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주관적 경험을 토대로 개념이나 상상, 허구, 그리고 환상의 영역이 첨가되어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하고 그것을 작품이라는 이름으로 형상화해 낸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 있다. 구전설화로 전해지는 이야기의 화소가 작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의 현재를 살아가는 작가의 현실 인식을 통해 문학 작품으로 어떻게 형상화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글은 제주도민들에게 전해지는 구비 문학인 <이여도>설화가 이청준의 소설 「이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밝혀내는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이런 이유로는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의 문학 작품은 다른 문학 작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텍스트에 대한 치밀한 구조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학은 유기적 구조물인 만큼, 소설 등 서사물의 미적 가치를 논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그 작품의 구조를 밝히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품에 대한 체계적 구조 분석을 통해서만이 주제의 의미를 더욱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고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구조주의 문학연구 방법¹⁾과 후기구조주의 문학연구 방법²⁾, 그리고 심리주의 문학연구

-
- 1) 구조주의 문학연구 방법론에서는 르네 지라르가 제시한 '욕망의 삼각형'을 형태론적 차원에서 원용하여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형태적 차원에서만 원용한다는 것은 작중인물의 욕망 체계를 이동변 삼각형의 논리로 이해하면서 주제, 중개자, 욕망 목표 등의 개념만을 빌려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주제의 해명과 수렴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수단으로, 그레마스의 '의미작용의 기본구조'를 분석의 논리로 하여 중재자, 혹은 최종 의미수렴자의 기능을 적용하겠다.
 - 2) 후기구조주의 문학 연구의 방법 중에서는 상호텍스트성을 사용하겠다. 상호텍스성이란, 미하일 바흐친의 대화주의 이론에서 영향을 받은 젤리아 크리스티바의 주장으로, 모든 문학 작품은 마치 모자이크와 같아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방법3)을 병행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II. 구비문학 <이여도> 분석

1. 구비문학 <이여도>에 나타난 화소

구비문학에 나타나는 <이여도>에 대한 화소는 극히 단조롭게 나타난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⁴⁾

(1) <이여도>는 제주도 서남쪽 항로에 있다는 섬이며, 제주도에서 강남으로 가는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고도 한다.

(2) 지난 날 제주도의 남정들이 진상품이나 상품을 싣고 가다가 거센 태풍을 만나 바다가 사나워지면 이 <이여도>라는 섬 주변의 소용돌이치는 물결에 배가 휘밀리어 들어가서 배가 파선되고 물사(沒死)하는 일이 거듭되었다 한다.

(3) <이여도> 주변 바다의 거센 소용돌이 속에 남편을 삽시에 잊은 제주의 여인들로서는 <이여도>는 원한의 표상이요 빼가 깎이는 애통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제주도 여인들은 <이여도>의 민요를 애듯이 부르면서 그들이 쓰라린 마음을 달래어 왔다 한다.

(4) <이여도>라는 섬은 한 번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 돌아올 길 없는 저승나라이니, <이여도>의 문은 저승의 문이여, <이여도>의 길은 저승의 길이며 그곳에는 연꽃이 은은하게 피어 있다는 것이다.

(5) 한편, 도민들은 <이여도>라는 섬을 또한 사람 삶에 소용되는 온갖

그 이전의 시대에 썼어진 텍스트들이나 같은 시대의 텍스트들이 뒤섞여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이론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독창적인 텍스트나 제일차적인 텍스트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3) 심리학적 문학 연구에서는 프로이트의 '제2차 정신의 지형학'을 토대로 인간 정신의 원형을 Id, Ego, Superego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4) 김영돈, 「제주민의 삶과 문화」, 제주문화, 1993, p. 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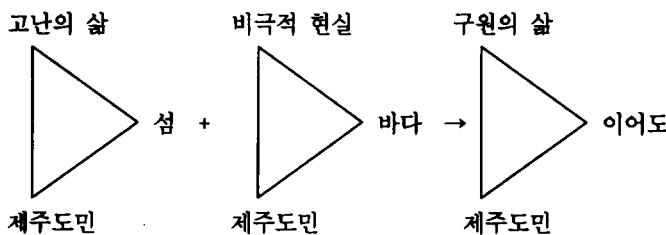
물종이 두루 가멸지게 갖추어지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갖은 즐거움과 환락이 사시사철 넘치는 낙토(樂土)로 그리기도 했다.

이상에 나타난, 구비 문학 <이여도>에 나타나는 화소를 통해 제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이여도>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현실의 힘든 삶을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유토피아이며, 그것은 더 이상 피안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차안의 삶 속에서 그 주술적인 힘이 현실화되는 공간이다. 그래서 제주민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이여도>를 갈망하였다. 이러한 갈망은 민요와 설화 등 구비문학으로 전해져 내려왔고, 현재와 와서도 제주도민의 무의식 속에 남아 있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요소들이 작가가 작품을 쓰게 되는 동기⁵⁾가 되었다.

2 구비문학에 나타난 <이여도>에 대한 욕망

구비문학에 나타나는 제주도민의 <이여도>에 대한 욕망은 르네 지라르가 제시한 '욕망의 삼각형'을 주체, 중개자, 욕망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형태론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1> 구비문학에 나타난 제주도민의 <이여도>에 대한 욕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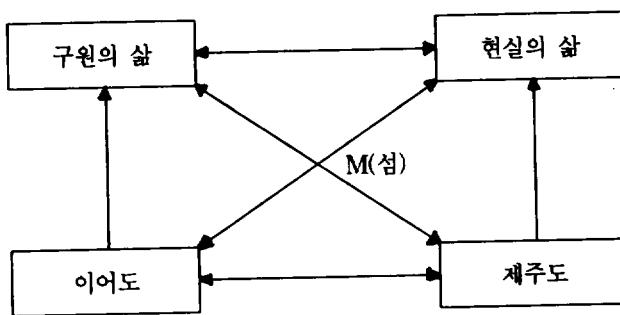
5) 나는 소설 <이여도>에서 이여도의 전설을 소개하고 그 섬의 정체를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그 섬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거꾸로 간섭해 왔고, 또 모습 지어왔는가를 보려고 노력했다. 이여도를 빌어서 피안의 그것이 아닌 현실의 삶의 한 참 모습을 해명해보고 싶어한 것이다.(이청준, 「작가의 말」)

제주도민의 지난 이어도에 대한 욕망은 바로 구원의 삶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다. 제주도가 지난 지형적인 영향으로 제주도민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또한 바다는 인간에게 윤택함도 주지만 때로는 목숨도 빼앗아 가버리는 비극적 현실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제주도민의 마음속에는 이어도라는 섬의 공간이 무의식적으로 축적되었다. 제주도민들 욕망은 ‘섬’이라는 공간을 가장 이성적인 상태인 Superego에서 인식하기 시작하여, 가장 무의식적 상태인 ID에서 구원적인 삶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결국 제주도민들은 ‘섬’이라는 공간 속에서 이상향과 현실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3. 구비문학 <이여도>에 나타난 주제

‘이여도’의 주제의 해명과 수렴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그레마스의 “의미작용의 기본 구조”를 분석의 논리로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구비문학 <이여도>에 나타난 주제



위 그림에서 보듯 <이여도>를 복락을 누리는 구원의 삶으로, 제주도를 현실의 공간으로 하여 서로 대립되는 이항대립의 관계를 통해 그 의미를 생성해 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어도가 구원의 삶이라는 대립을 통해 주제를 인식시키고 있다. 그리고 섬은 이런 구원의 삶과 현실

의 삶을 중재시켜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원의 삶과 현실의 삶이라는 이 두 관계는 ‘섬’(M)이란 공간에 이끌리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제주도민의 마음에는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주도의 구비 문학에 <이여도>는 ‘섬’이란 공간 속에서 현실과 이상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그 주제로 하고 있다.

III. 이청준의 소설 「이여도」 분석

1. 표제의 의미

소설의 표제는 작품 전체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때때로 단편소설에서는 제목이 작품의 의미에 대한 단서가 된다. 즉 작가의 전언이라 할 수 있는 주체가 제목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독자는 일차적으로 제목을 통해 텍스트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여도>는 앞에서 제시한 설화의 화소를 통해 살펴보면 이상의 세계 즉 유토피아(Utopia), 또는 무릉도원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여도>는 현실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저승의 세계로 나타난다. 또 다른 의미의 <이여도>는 해녀들에 있어서 미역과 전복이 풍성한 가멸진 樂土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여도>의 의미는 한 번 들어가면 살아 돌아올 길 없는 저승의 나라이고 <이여도>의 길은 저승의 길이며 그곳에는 연꽃이 온온하게 피어 있으며 또한 사람 삶에 소용되는 온갖 물종이 두루 있고 즐거움과 환락이 사시사철 넘치는 곳을 뜻하고 있다.⁶⁾ 결국 <이여도>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제주도 사람들은 저승의 세계도 이승의 세계처럼 섬이라는 공간을 상상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⁷⁾ 이러한 내용이 이청준의 「이여도」라는 작품에는 어떤 영향

6) 김영돈, 「제주민의 삶과 문화」,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3, pp.289~300.

7) 김영화, 「문학과 <이여도>」, 『백록어문』제12집, 백록어문학회, 1996, p.50.

을 주었는지 살펴보면,

그것은 이를테면 오랜 세월 동안 이 제주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 전설의 섬이었다. 천리 남쪽 바다 밖에 파도를 뚫고 꿈처럼 하얗게 솟아 있다는 제주도 사람들의 피안의 섬이었다. 아무도 본 사람은 없었지만, 제주도 사람들의 상상의 눈에서는 언제나 선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수수께끼의 섬이었다. 그리고 누구나 이승의 고된 생이 끝나고 나면 그 곳으로 가서 새로운 저승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제주도 사람들의 구원의 섬이었다.

그는 이 소설에서 <이어도>를 ① 전설의 섬, ② 제주도 사람들의 피안의 섬, ③ 상상의 섬, ④ 이승의 고된 생이 끝나서 저승의 복락을 누리는 구원의 섬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① 현실의 공간, ② 현실의 고된 삶이 지속되는 공간인 제주도와 이항 대립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여기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도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피안으로서의 세계가 아닌 차안의 삶 속에서 존재하는 이어도를 부정하고,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작가의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이어도>에 나타난 표제의 의미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다.

<표 3> 표제에 나타난 이항 요소 분석

제주도	이어도
이승의 고된 현실의 삶	복락을 누리는 구원의 삶
섬	섬

2. 이야기의 분절과 의미망 요약

일반적으로 플롯에 대한 미학적 가치평가나 특수성의 탐구는 기본적

으로 이야기의 문학적 변형논리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가장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의미망의 분절과 재구성을 통하여 텍스트의 이야기 질서는 소재로서의 이야기 질서로 환원시킬 수 있고, 대비적 관점에서 작가의 예술적 의도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변형논리 탐구를 위한 분석의 첫 단계는 최소 의미망을 분석의 기본 단위로 설정하여 이야기를 분절하는 일이다. 이때 모든 분석자에게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최소 의미망을 어느 수준에서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서사체 이야기에서 가장 효율적인 분석 단위는 단어나 문장의 수준이 아니라, 단락이라 할 수 있다.⁸⁾ 단락은 일반적으로 서사의 기본조건인 움직임, 시간, 의미를 함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때 단락 속에 포함된 의미는 그 단락을 의미론적으로 수렴시키는 작은 단위의 주제소와 만나게 되는데 이것을 단락소라 정의하면 「이어도」는 31개의 단락소가 이끄는 의미망의 형태로 분절하여 재구성할 수 있다.

1.

- 1) 파랑도 수색작전은 작전 2주일만에 완전히 끝이 났다.(수색 작전 종료)
 - 2) 수색 도중 현장 취재를 위해 동승한 천남석 기자의 실종사고가 있었다.(작전중 실종사고)
 - 3) 선우 현 중위는 천기자의 실종으로 인하여 양주호 편집국장과 처음으로 만난다.(양국장 만남)
 - 4) 양국장은 천기자의 실종을 자살로 단정한다.(자살로 단정함)
 - 5) 선우 중위는 천기자와 실종전 자신과의 이어도에 관한 대화 내용을 회상한다.(실종전 이어도에 관한 대화)
- ## 2.
- 6) 사고 전날밤 선우 중위는 천기자를 통해 이어도의 내력 및 전설 파랑도의 소문을 듣는다.(이어도 내력 · 전설)

8) 안성수, 「한국 근대 단편소설의 플롯연구 시론」, 중앙대 박사논문, 1989, p.12.

7) 수색 작전중 남기자는 이어도의 현실적 존재 부정에 이르게 된다.
(현실적 존재 부정)

8) 수색 작전이 끝나던 날 밤 중위는 천기자와 이어도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천기자의 어릴 적 이어도에 얹힌 사연을 듣는다.(어릴 적 사연 들음)

3.

9) 선우 중위는 양국장과 함께 뜻과는 상관없이 술집<이어도>로 동행하게 되고, 술을 마시게 된다.(술을 마시게 됨)

10) 술집에서 선우 중위는 양국장을 통해 천기자가 왜 자살했는지를 확인하려 한다.(자살에 대해 확인 하려함)

11) 선우 중위는 술집<이어도>에서 술집잡부와 대면하게 되고, 양국장은 천기자의 죽음을 그 술집여자에게 전하고 중위는 천기자의 죽음에 대해 더욱 미궁에 빠져들어 간다.(대화중 미궁으로 빠짐)

12) 술집 여자는 양국장의 주문으로 함정에서 천기자가 부르던 이어도를 부른다.(이어도 노래를 부르는 여인)

13) 선우 중위는 노래를 들으며 폭풍전날 천기자가 불렀던 노래 이어도에 대한 회상을 한다.(노래 얹힌 회상)

14) 양국장은 선우 중위에게 천기자와는 다른 모습의 이어도에 관한 그의 견해를 보여준다.(양국장의 다른 태도)

15) 양국장의 주정을 통하여 선우 중위는 수색작전의 실패와 남기자만의 느끼는 이어도 찾기 성공을 듣는다.(남기자의 이어도 찾기를 들음)

4.

16) 술집을 나오면서 선우 중위는 천기자의 실종에 대해 더욱 미궁으로 빠져든다.(더욱 미궁으로 빠지는 실종사건)

17) 선우 중위는 천기자의 집으로 가자는 양국장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동행하면서 천기자에게 여자가 있음을 알게된다.(여자가 있음을 들음)

18) 양국장을 뒤따라가다 천기자의 집근처에서 선우 중위는 천기자에게 들은 어린시절에 얹힌 사연을 회상한다.(얽힌 사연회상)

19-1) 아버지가 바다에 나가면 어머니는 매일 돌을 쌓으며, 이어도 노래를 부르고 소년은 노래를 들으면서 우울한 심정에 빠져든다.(우울해지는 소년)

19-2) 아버지가 바다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는 노래부르기를 멈춘다.(노래 부르기 멈춤)

19-3) 소년은 이어도 노래를 부르려 하지 않는 아버지의 태도를 통해 편안함을 느낀다.(편안한 소년)

19-4) 다시 아버지가 바다로 떠나면 어머니는 바다를 향해 이어도 노래를 부른다.(다시 노래를 부르는 어머니)

19-5) 아버지는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으나 구조되어 그전 모습과 달리 양복과 구두 등을 신고 집으로 돌아온다.(조난 후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의 모습)

19-6) 아버지는 조난 직후 이어도를 보았다고 말을 하고 이어도를 찾아 떠날 준비를 한다.(이어도를 보았다는 아버지)

19-7) 아버지는 얼마 없어 조난 직후 보았다는 수평선 너머에 있는 이어도를 찾아 떠난다.(이어도를 찾아 떠나는 아버지)

19-8) 아버지를 기다리며 이어도 노래를 부르다가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다. (아버지를 기다리다 죽는 어머니)

5.

20) 어수선한 천남석의 방에서 양국장은 선우 중위에게 곧 천남석의 여자를 만날거라고 말하고는 집을 나온다.(여자를 만날거라며 떠나감)

21) 선우 중위는 천남석의 여자가 술집 <이어도>에서 노래를 부른 술집 잡부임을 알게되고, 그녀와 천남석의 죽음에 관한 대화를 나눈다.(술집여자 임을 알게 됨)

22) 선우 중위는 여자와 대화를 끝내고 돌아가려 하지만, 무언지 모르는 마력—이어도의 마력에 젖어들어 그냥 천남석의 방에 머무른다.(방에 머무름)

23) 선우 중위는 천남석이 무엇인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듯 초조하게 보이는 마지막 모습과 마지막으로 본 갑판 근무병이 천기자가 무엇에 훌린 듯 난간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는 말을 회상한다.(천기자의 마지막 모습)

24) 선우 중위는 여인의 침묵에 끌려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면서 이어도에 이끌리는 마력과 여인의 침묵을 깨려고 애를 쓴다.(이어도의 마력과 여인의 침묵을 깨려고 애씀)

6.

25) 하룻밤을 보낸 뒤 아침이 되자 선우 중위는 여인에게서 이어도에 얹힌 사연을 들게된다.(여인의 사연 들음)

26) 사연을 들으면서 그녀를 떠맡아야 한다는 운명을 느낀 선우 중위

는 양국장을 다시 만나기로 결심한다.(양국장과 만나기로 결심)

27) 선우 중위는 양국장과 천기자의 운명, 여인의 운명에 관해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운명에 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양국장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양국장에 대한 두려움)

28) 양국장은 선우 중위에게 천기자의 죽음이 자살이라는 필연성을 말하면서 이어도의 마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준다.(이어도의 마력에 대해 들음)

29) 선우 중위는 대화를 통해 남기자가 자살을 통하여 그의 가슴에 있는 이어도에 도달했을 거라는 깨달음을 얻는다.(이어도에 대해 깨달음)

7.

30) 중위는 전령선을 타고 다시 떠나가고 섬과 사람들은 다시 평온을 되찾는다.(평온을 찾은 섬)

31) 어느날 아침, 파도에 밀려 천기자의 시신은 섬으로 돌아온다.(시신이 섬으로 돌아옴)

3. 의미망의 기능 탐색

「이어도」는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현재, 회상 또는 현재와 회상이 반복구조를 통해 소설주제를 형상화 해내고 있다.

1장은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결말에 대한 개연성을 확립 시켜주는 미적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선우 현 중위와 양주호 편집장과의 대화 내용 중 선우 중위의 회상 ‘그날 밤 천 기자의 이야기에서 느낄 수 있었던 어떤 치명적인 절망감은 바로 그가 이어도를 만날 수 없었던 데서 비롯한 것이 아니었나’를 통해서 보여진다. 또한 선우 현 중위와 양주호 편집장과의 대화를 통하여 문제제기의 기능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2장은 전개에 해당한다. 2장에서는 이어도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는 곳이다. 이런 정보적 기능이 갖는 내포적 의미는 이어도의 비현실성,

상상성을 설명하는 데 있다. 제주도민에게 있어 이어도가 전설의 섬, 제주도 사람들의 피안의 섬, 상상의 섬, 이승의 고된 생이 끝나서 저승의 복락을 누리는 구원의 섬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작가가 결말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있다. 즉 이어도에 대한 현실성과 이상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장은 술집에서의 양국장의 행동 즉 술집여자에게 노래를 주문한다든지, 술집여자를 대하는 언행을 통해 실종사고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음을 보여주는 본론의 배경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4장은 회상을 통해 천기자의 어린 시절 이어도에 얹힌 사연을 들려주는 내부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즉 내부이야기를 통해 주제를 더욱 선명하게 암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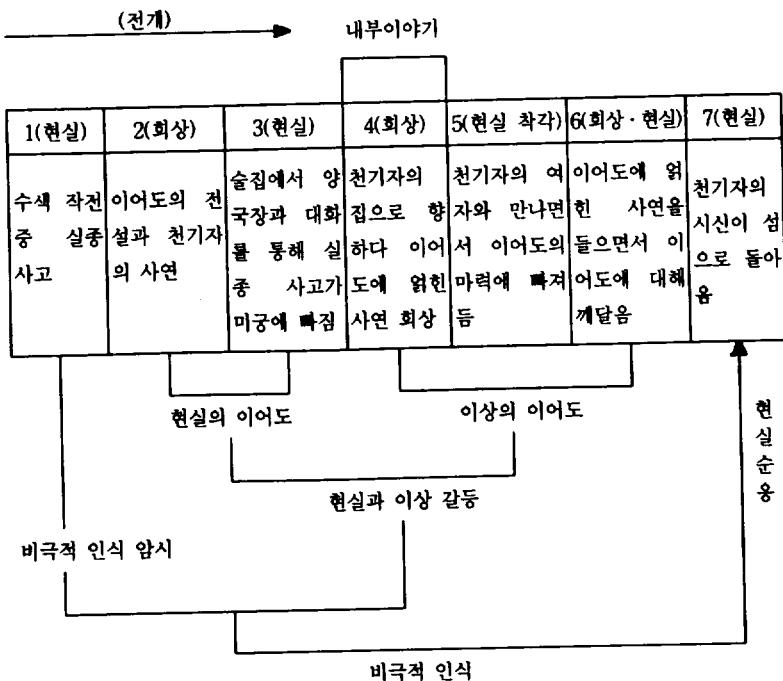
5장은 선우 현 중위가 이어도의 마력에 빠져드는 지점이다. 여기서 작가는 천기자의 여자를 내세워,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점점 이어도의 마력에 빠져드는 착각을 보여주는 기능을 부과시키면서 이 소설을 절정으로 전이시키고 있다.

6장은 여인의 이어도에 얹힌 사연 회상과 양국장과의 대화를 통해 선우 현 중위가 이어도에 대한 상상성을 깨닫는 지점으로 절정에 해당한다.

7장은 이 소설의 결말로서 천기자의 시신이 다시 섬으로 돌아옴으로 인해 이어도의 상상성은 깨어지고 이어도의 현실성만이 남는 작가의 현실 순옹이 보여진다

이상의 의미망 분절과 기능탐색을 토대로 할 때 이 소설은 현실과 회상을 통하여 제주도민이 갖고 있는 이어도의 현실성과 비현실성·상상성을 타지방 사람인 선우 현 중위의 내면적 갈등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천기자의 시신이 다시 섬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 이상향인 이어도는 그저 이상향으로만 남을 뿐이라는 비극적 인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관계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 <이어도>의 의미 생성 체계



따라서, 이 소설은 비극적 인식을 암시하는 프롤로그 부분과 현실의 이어도를 나타내는 현실의 상황과 비현실의 이어도 상상성의 이어도를 나타내는 회상의 부분을 통해, 이어도가 지니고 있는 현실적 존재와 비현실적 존재를 냉철하게 조명해 준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4. 이야기의 예술적 변형논리 분석

한 편의 소설이 보여주는 문학적 이야기는 작가에 의해 재현된 2차 이야기이다. 2차이야기로서의 문학적 질서는 소재로서의 1차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질서에 문학적 상상력을 투영시켜 재구성

한 변형된 질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1차이야기를 2차이야기로 변형시키는 방법과 원리 속에는 작가의 예술적 의도가 간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변형원리의 탐구는 앞에서 의미망의 요약과정과 기능과정을 거쳐 정리된 2차이야기의 분석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2차이야기의 의미망을 단순화시켜 핵기능만을 정리하여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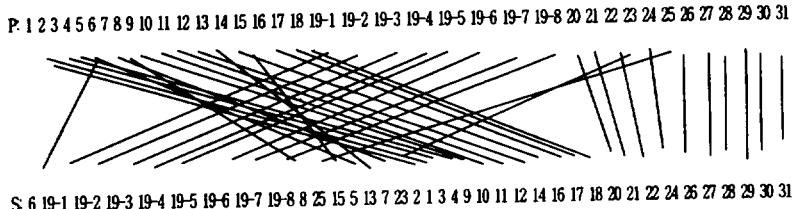
- (1) 수색 작전 종료 ~ (2) 작전중 실종사고 - (3) 양국장 만남 - (4) 자살로 단정함 - (5) 실종 전 이어도에 관한 대화 - (6) 이어도 내력·전설 - (7) 현실적 존재 부정 - (8) 어릴 적 사연 들음 - (9) 술 마시게 됨 - (10) 자살에 대해 확인 하려함 - (11) 대화중 미궁으로 빠짐 - (12) 이어도 노래를 부르는 여인 - (13) 노래 얹힌 회상 - (14) 양국장의 다른 태도 - (15) 남기자의 이어도 찾기를 들음 - (16) 더욱 미궁으로 빠지는 실종사건 - (17) 여자가 있음을 들음 - (18) 얹힌 사연회상 - (19-1) 우울해 지는 소년 - (19-2) 노래 부르기 멈춤 - (19-3) 편안한 소년 - (19-4) 다시 노래를 부르는 어머니 - (19-5) 조난 후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의 모습 - (19-6) 이어도를 보았다는 아버지 - (19-7) 이어도를 찾아 떠나는 아버지 - (19-8) 아버지를 기다리다 죽는 어머니 - (20) 여자를 만날거라며 떠나감 - (21) 술집여자 임을 알게됨 - (22) 방에 머무름 - (23) 천기자의 마지막 모습 - (24) 이어도의 마력과 여인의 침묵을 깨려고 애씀 - (25) 여인의 사연 들음 - (26) 양국장과 만나기로 결심 - (27) 양국장에 대한 두려움 - (28) 이어도의 마력에 대해 들음 - (29) 이어도에 대해 깨달음 - (30) 평온을 찾은 섬 - (31) 시신이 섬으로 돌아옴

플롯이 소재를 예술적으로 변형시키는 2차이야기의 생성원리라 한다면 텍스트의 이야기 배열질서는 곧 플롯의 배열순서가 된다. 그러므로 바로 위에서 추출해낸 31개의 의미망은 플롯의 방법이 된다. 이러한 이야기 배열순서를 절대시간 순서로 환원시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은 1차이야기의 형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 (6) 이어도 내력·전설 - (19-1) 우울해 지는 소년 - (19-2) 노래 부르기 멈춤 - (19-3) 편안한 소년 - (19-4) 다시 노래를 부르는 어머니 - (19-5) 조난 후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의 모습 - (19-6) 이어도를 보았다는 아버지 - (19-7) 이어도를 찾아 떠나는 아버지 - (19-8) 아버지를 기다리다 죽는 어머니 - (8) 어릴 적 사연 들음 - (25) 여인의 사연 들음 - (15) 남기자의 이어도 찾기를 들음 - (5) 실종 전 이어도에 관한 대화 - (13) 노래 얹힌 회상 - (7) 현실적 존재 부정 - (23) 천기자의 마지막 모습 - (2) 작전중 실종사고 - (1) 수색 작전 종료 - (3) 양국장 만남 - (4) 자살로 단정함 - (9) 술 마시게 됨 - (10) 자살에 대해 확인 하려함 - (11) 대화중 미궁으로 빠짐 - (12) 이어도 노래를 부르는 여인 - (14) 양국장의 다른 태도 - (16) 더욱 미궁으로 빠지는 실종사건 - (17) 여자가 있음을 들음 - (18) 얹힌 사연회상 - (20) 여자를 만날거라며 떠나감 - (21) 술집여자 임을 알게됨 - (22) 방에 머무름 - (24) 이어도의 마력과 여인의 침묵을 깨려고 애씀 - (26) 양국장과 만나기로 결심 - (27) 양국장에 대한 두려움 - (28) 이어도의 마력에 대해 들음 - (29) 이어도에 대해 깨달음 - (30) 평온을 찾은 섬 - (31) 시신이 섬으로 돌아옴

이상을 바탕으로 Plot-line 과 Story-line을 대비시켜 보면 다음과 같아 나타낼 수 있다.

<표 5> Plot Line과 Story Line 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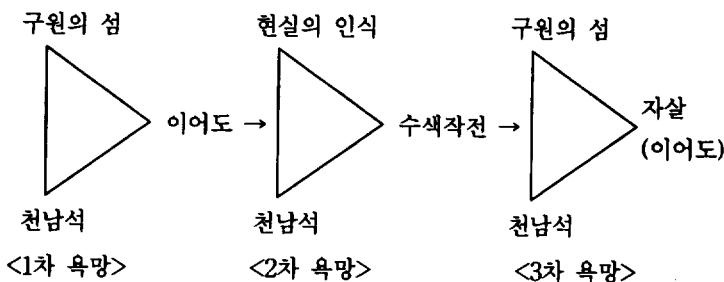


5. 인물의 욕망과 플롯의 기능

르네 지라르가 제시한 '욕망의 삼각형'을 주체, 중개자, 욕망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형태론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어도」에 내포된 인물의 욕망구조는 크게 천남석, 양주호, 술집 여인이 지니고 있는 제주민이 공통된 욕망과 선우 현 중위 욕망으로 살필 수 있다.

(1) 천남석의 욕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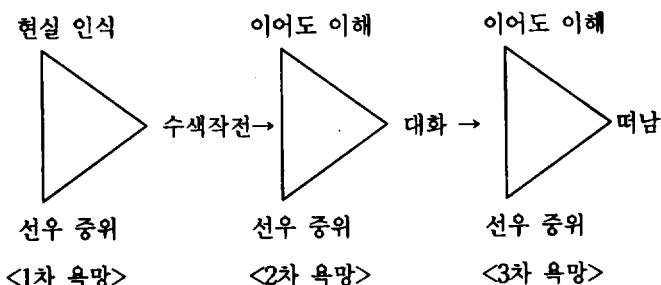
<표 6> 천남석의 욕망 분석



욕망 체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천남석의 1차 욕망은 이어도를 제주도 민의 항상 꿈꾸는 '복락을 누리는 구원의 섬'이다. 이것은 그의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욕망으로 의식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차원 즉 Id상태의 욕망이다. 그러나 차츰 Ego나 Superego 가 싹트기 시작하면서 복락을 누리는 구원의 섬이 아니라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섬임을 깨닫기 위해 수색작전에 참가하면서 2차욕망에 매달리게 된다. 결국 이어도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하게 되자 그는 자살을 통하여 이어도가 구원의 섬이라는 인식을 지키기 위해 3차적 욕망을 갖지만, 결말 부분에 다시 섬으로 그의 시신이 돌아오면서 비극적 인식에 이르게 한다.

(2) 선우 현 중위의 욕망

<표 7> 선우 현의 욕망 분석



선우 현 중위의 욕망은 두 개의 도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1차 욕망은 수색 자전을 통하여 이어도의 현실적 부재와 복락을 누리는 구원의 섬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려는 Ego나 Superego적인 힘의 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천남석 기자의 실종 사건과 폭풍우로 인하여 실패하고 만다. 2차 욕망은 천기자의 실종 사건이 계기가 되어 사건을 조사하던 중 술집 여자와 대화, 양국장과의 대화를 통하여 어느 정도 이어도의 미에 대해 깨달음을 얻지만 다시 현실적 삶인 작전 선단으로 복귀하고 있다. 복귀는 비극적 현실인식을 더욱 증폭 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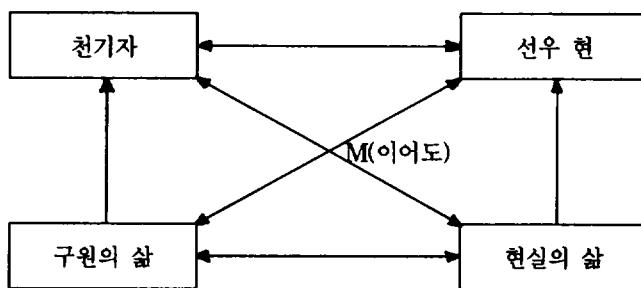
이상의 욕망 구조를 통해 N. Frye가 제시한 플롯의 유형⁹⁾을 살펴보면 제주도민의 공통된 정서인 상상성의 이어도를 지키기 위해 천남석은 자살을 하지만 다시 시체가 되어서 현실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어도는 다시 누군가가 젊어질 짐으로 현실에 남게되었다. 그러므로 「이어도」의 플롯은 겨울의 미토스에 해당하는 개선의 결핍 플롯이라 할 수 있다.

9) N. 프라이, 임철규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1982.

6. 주제 분석

「이어도」의 주제의 해명과 수렴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그레마스의 “의미작용의 기본 구조”를 분석의 논리로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이어도」의 주제 분석



위 그림에서 보듯 <이어도>를 중재자로 하여 구원의 삶과 현실의 삶이 서로 대립관계를 통해 소설 「이어도」는 그 의미가 생성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천기자와 선우 현이 지닌 <이어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작가는 주제를 인식시키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이항적인 이 두 관계는 이어도(M)에 이끌리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제주도민의 마음에는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비극적 인식’의 한 단면이다. 작가는 이를 통해, 자유로운 정신의 모험을 꿈꾸는 한 개인의 내면사와 그가 실존하고 있는 현실과의 갈등 속에서 삶의 참 모습을 발견해내고 있다.

III 구비문학 <이어도>와 이청준의 「이어도」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

상호텍스트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흐찐이 ‘대화성’이론을

이해해야 한다. 바흐찐이 대화성이론이 크리스테바에 이르러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흐찐에 있어서 대화는 일차적으로 주체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의미한다. 대화 속에서 <나>와 <남>은 각자의 고립된 개별성의 영역에서 벗어나 상호 소통과 조정의 역동적 관계를 형성한다. 대화를 구성하는 발화들은 주체들이 공유하는 세계를 전제로 하는 사회적 행위이며, 바흐찐이 강조하는 언어의 살아 있는 실재이다. 그러나 바흐찐에 따르면, 대화적 관계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의 보다 중요한 의의는 <차이 있는 것들의 동시적 현존>에 있다.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며 대화 중에 교환되는 발화들은 서로 다른 발화들이다. 동일한 사람, 동일한 발화라는 조건하에서는 대호의 상황은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대화는 차이들을 매개로 성립하며, 또한 그것들을 결합시킨다. 따라서 대화적 관계는 <이것이나 저것이냐>라는 상호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모두>라는 상호 포용적 관계라는 것이다.¹⁰⁾

크리스테바는 이런 대화성의 논리를 바탕으로 상호텍스트의 개념을 이야기 한다. 한 문학 텍스트가 다른 문학 텍스트들로 짜여져 있다는 것이다. 모든 문학 작품은 마치 모자이크와 같아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이전의 시대에 써어진 텍스트들이나 같은 시대의 텍스트들이 뒤섞여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상호 텍스트성은 단순히 다른 작가들한테서 영향을 받은 혼적이 보인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다른 텍스트를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고 재결합하는 과정이 상호텍스트성이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독창적인 텍스트나 제일차적인 텍스트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¹¹⁾

이상을 통해 구비 문학으로 전승되어 오는 <이여도>와 이청준의

10)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pp. 108~109.

11) 김옥동, 「광장을 읽는 일곱 가지 방법」, 문학과지성사, 1996, p. 354.

「이어도」간에 상호텍스트의 관계는 먼저, 「섬」이라는 공간 구조에 대한 근원적 현실 인식에 있다. 구비 문학 나타나는 현실인 「섬」은 이상과 현실의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의 공간이며, 이청준의 「이어도」에 나타나는 현실인 「섬」은 단지 현존하는 현실일 뿐인 것이다. 하지만, 이청준의 「이어도」에 대한 창작 동기에서 밝히듯 그 역시 현실 속에서 <이어도>를 인정하고 있다.¹²⁾ 이러한 인식은 이청준으로 하여금 「이어도」를 창작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작품 구조에 나타나는 상호텍스트는 비극적 구조에 있다. <이여도> 역시 도달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결국 죽어서야 갈 수 있는 곳이다. 「이어도」 역시, 천남석이 수색작전 중 자신이 갖고 있던 이어도를 인식하기 위해 자살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을 맺는 비극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여도>와 <이어도>가 지닌 공통점은 작품 속에 나타나는 제주도민의 의식 또는 욕망에 있다. 두 작품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이어도를 구원의 공간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작가는 이어도의 신앙을 전적으로 추종하지 않고, 선우 현 중위의 태도와 결말 부분에서 시체가 다시 포구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 구비문학으로 전승되어 온 <이여도>를 변화를 시켜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외지인의 시각을 통해 이어도의 신비주의를 현실주의로 환원하고 있는 점이다.

IV. 결론

문학은 작품과 작품의 상호작용에 의해, 새로운 하나의 작품으로 존

12) 바라건대 우리에게 더 많은 이어도가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이어도가 실재 아닌 허구에 불과한 것이라 하더라고 우리는 때로 가시적인 사실에서보다는 그 허구 쪽에서 오히려 더 깊은 진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으며, 자유로운 정신의 모험을 꿈꾸는 한 개인의 사와 그가 실존하고 있는 현실과의 갈등 속에 우리는 가장 절실향한 우리 삶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청준, 「작가의 말」)

재한다. 지금까지 이 글은 이러한 상호텍스트의 내용을 토대로, 구비문학에 나오는 <이여도>와 이청준의 소설 「이어도」를 상호텍스트적으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구비문학에 나타난 <이여도>도에 대한 욕망은 구원의 삶이며, 이를 토대로 제주도민들은 '섬'이라는 공간 속에서 이상향과 현실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있다.

② 구비문학 <이여도>에 나타나는 주제는 '섬'을 중재자로 하여 현실과 이상이 함께 공존함이다.

③ 이어도의 표제에 나타난 의미는 전설의 섬, 제주도 사람들의 피안의 섬, 상상의 섬, 이승의 고된 생이 끝나서 저승의 복락을 누리는 구원의 섬과 현실의 공간, 현실의 고된 삶이 지속되는 공간이 이항 대립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소설은 비극적 인식을 암시하는 프롤로그 부분과 현실의 이어도를 나타내는 현실의 상황과 비현실의 이어도 상상성의 이어도를 나타내는 회상의 부분을 통해, 이어도가 지니고 있는 현실적 존재와 비현실적 존재를 냉철하게 조명해 준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이어도」의 플롯은 겨울의 미토스에 해당하는 개선의 결핍 플롯이라 할 수 있다.

⑥ 「이어도」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상상 속에는 존재한다는 '비극적 인식'을 그 주제로 하고 있다.

⑦ 구비 문학으로 전승되어 오는 <이여도>와 이청준의 「이어도」간에 상호텍스트의 관계는 먼저, '섬'이라는 공간 구조에 대한 근원적 현실 인식에 있다.

⑧ 작품 구조에 나타나는 상호텍스트는 비극적 구조에 있다.

⑨ <이여도>와 「이어도」가 지닌 공통점은 작품 속에 나타나는 제주도민의 의식 또는 욕망에 있다.

<참고 문헌>

1. 텍스트

이청준, 『이어도』, 문학과지성사, 1976.

2. 단행본

권택영, 『후기 구조주의 문학이론』, 민음사, 1990.

권택영, 『영화와 소설 속의 욕망이론』, 민음사, 1995.

김수복 · 양은창 엮음, 『한국현대소설이해와 감상』, 한림출판사, 1992.

김영돈, 『제주도민의 삶과 문화』,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3.

김영화, 『변방인의 세계』, 제주대 출판부, 2000.

김옥동, 『광장을 읽는 일곱 가지 방법』, 문학과지성사, 1996.

김준오 외, 『구조주의』, 고려원, 1992.

김천해, 『소설 구조의 이론』, 문학과지성사, 1990.

양순필박사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어문논총』, 학문사, 1993.

윤호병 외, 『후기구조주의』, 고려원, 1992.

한국서사연구회, 『내러티브 제2호』, 개마고원, 2000.

한용환, 『소설학사전』, 고려원, 1992.

3. 논문

김영화, 『문학과 이여도』, 『백록어문』 제12집, 백록어문학회, 1996.

안성수, 『한국근대 단편 소설의 플롯 연구 시론』, 중앙대 대학원 박사논문, 1989.

한정석, 『소설에 나타난 운명관의 비교 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7.

4. 외서 및 번역서

N. 프라이, 임철규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1982.